

투데이 칼럼

일본 야스쿠니 신사참배

일본 현직 국회의원 90여 명이 지난 4월 21~22일 동안 진행된 봄 제사(에대제)에 맞춰 야스쿠니 신사를 합동 참배했다.

기사다 후미오 총리와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은 공물을 봉납했으며,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은 직접 참배 후 공물까지 봉납했다.

야스쿠니 신사를 합동 참배한 87명은 자민당 76명·입헌민주당 1명·일본유신회 7명·기타 및 무소속 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일원이다.

모임의 부회장을 맡은 자민당 소속 아이사와 이치로 중의원은 참배 후 기자회견에서 "오늘날 일본의 번영과 평화의 초석에 수많은 전몰자, 영령이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와 중의원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로 중국과 러시아에 엄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어떻게 평화와 융화를 실현할지 각국 정상들이 공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사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마사카기(비쭈기나무)'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임 후 5번째 봉납이다. 기사다 총리는 2021년 10월 취임 전까지는 공물을 봉납한 적이 없다.



정복규 논설위원

그러나 취임 후 봄·가을 제사에 야베 신조(安倍晋三)·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를 답습해 마사카기를 봉납해 왔다. 현재까지 기사다 총리가 직접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참여한 적은 없다.

이 중에서도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사죄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비판하며 수정을 요구할 정도로 일본 보수 정치권 중에서도 극우 색채를 띤다.

야베 신조 전 총리의 강력한 지지를 받은 자민당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헌법 개정 등을 주장하고 위안부(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테레비아시아에 "국책을 위해 돌아가신 분들의 영령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애도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유족 분들의 건강을 기원했다"고 말했다.

도로 지요다구에 위치한 야스쿠니 신사는 하와이 진주만 기습공격을 명령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A급 전범 14명 등 246만6000여명의 영령이 합사된 일본 우익의 성지다.

공물을 바치건 참배를 하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중국은 이 문제에 더 강경한 편이다.

기사다 총리 자신이 그나마 자민당 여러 파벌 중에서도 자유주의적이고 주변국과 협력을 할 사람으로 평가 받는 편이다.

일본엔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돼 있는 유족 묘역이 있다. 이들은 자민당 우파의 중요한 지지 기반이다. 이런 집단이나 일본의 우파, 자민당을 지지하는 보수 집단 등은 야스쿠니 참배 여부를 보수 정치가로서의 자격 여부를 판단한다.

총리가 되면 '포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사다 총리는 우익 세력이나 자민당 내 야베파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공물 헌납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일본 내에서도 A급 전범들을 별도로 합사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다. 분리 합사가 이뤄지면 한국·중국을 자극할 요소가 줄어들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큰 진전은 없었다.

과거사 문제 외에도 한일 갈등 현안이 산적해있다. 후쿠시마 산수물, 오염수 문제는 안전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절대 물러선 안 된다. 건강 주권·해양 주권 문제가기 때문이다.

일본 국민들조차 오염수 처리와 방류에 대해 상당 부분 의심하고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사실 규모 있는 댐크를 몇 개 더 건설하면 최소 10년 이상은 더 오염수를 보관할 수 있다.

'공간이 없다'는 일본 주장은 거짓이다. 10년 동안 한중일이 오염수를 완전히 처리수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한다. 동북아에서 한국이 어떻게 해야 최대 이익을 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한일 관계는 여전히 경제 국면이다. 우리가 먼저 양보해 풀어나가자는 의견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강한 반발 여론이 계속되면 결국 아무것도 추진할 수 없다.

사설

고물가 속 착한 식당들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생활이 팍팍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고물가 시대에 아침밥을 거르는 대학생들도 많다. 이들에게 '천원 밥상'이 등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윤을 적게 남겨 손님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별도로 합사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다. 분리 합사가 이뤄지면 한국·중국을 자극할 요소가 줄어들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큰 진전은 없었다.

전주의 어느 식당은 세월의 흔적이 간판에서부터 묻어나다. 점심때면 손님들로 북적여 자리 잡기가 힘들 정도다. 국이든 반찬이든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는 이 식당의 한 끼 가격은 4천 원이다.

쌈값에, 맛 집으로 입소문을 탄 지 오래다. 손님들은 "가격은 아주 저렴하죠. 이런 가격에 맛볼 수가 없어요"라고 말한다. 음식점 주인에게는 음식을 팔아도 남는 게 거의 없다.

그러나 식당을 찾아주는 손님들을 생각하면 밥값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 버티고 버티다

얼마 전부터 5백 원을 올리기는 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은 없다. 손님들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어떤 비결이 있는지 좀 얘기해주세요"라고 묻는다. 식당 주인은 "직접 농사를 짓고 이득을 안 보려고 하니깐, 그것이지 뭐"라고 답한다.

짜장면과 짬뽕을 4천원 혹은 5천 원에 파는 중국음식점도 있다. 손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식재료는 납품 대신 직접 발품을 팔아 비용을 줄인다.

그리고 가족들 도움을 받아 인건비를 아낀 덕에 가능한 일이다. 중국음식점 주인은 "양은 얼마든지 더 드리고, 추가로 돈 안 받는다"고 한다. 식재료 값 인상에도, 절기와 가스 요금이 줄줄이 오르는 상황에서도 '착한 가격'을 고집하는 우리 이웃들이다. 누군가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며, 각박한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주고 있다.

부안 위도 꿀벌 격리육종장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꿀벌 개체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전북 부안군 위도에 있는 국내 유일의 꿀벌격리육종장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격리육종장에서 개발한 꿀벌 품종을 농가에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증식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있다.

2020년 세워진 위도 꿀벌격리육종장은 품종 개발과 생태 환경 연구, 토종꿀 교미 실험, 품종 생산 체계 구축 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곳에는 연구 인력 7명이 상주해 연구를 하고 있다.

위도는 꿀벌 연구를 위한 '최적지'로 꼽힌다. 꿀벌의 최대 비행거리는 벌통에서부터 6~9km다. 위도는 육지인 부안 격포항에서 15km 떨어져 있어 벌이 넘어오기 힘들다.

인근에 양봉 농가도 없어 연구진에 의한 철저한 계획 교배가 이뤄진다. 2014년 벌꿀 다수확용인 장원

벌을 시작으로 2017년 로열1호, 남충봉아부패병 저항성인 한라벌, 토종꿀 다수확용 백두벌, 고품질 로열젤리 생산용 젤리킹, 고품질 프로폴리스 생산용 봉고1호 등 꿀벌 품종을 개발했다.

꿀벌 폐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응애 연구도 이뤄진다. 응애는 진드기의 일종으로 꿀벌에 기생하며 체액을 빨아 먹고, 꿀벌의 체중과 수명, 활동량을 감소시킨다. 기후 변화와 응애는 양봉 농가의 가장 큰 고민이다.

꿀벌 증식을 위한 보급형 여왕벌의 대량 공급도 필수다. 농촌진흥청은 2025년까지 충남과 전남, 경북 등 3곳에 '꿀벌 자원 육성 품종 증식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육종장처럼 육지와 격리된 지역이면서 밀원식물이 풍부한 지역이 이상이다. 육종장에서 개발한 꿀벌을 농가에 보급해 꿀벌 실종을 막고 품질 좋은 벌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와, 올라간다”



지난 11일(현지시각) 미 워싱턴주 워리얼라에서 제47회 '워리얼라 열기구 스템피드'가 열려 두 소녀가 열기구를 타고 출발하고 있다.

파키스탄 대법원 “임란 칸 전 총리 체포는 무효”



지난 11일(현지시각) 파키스탄 페샤와르에서 임란 칸 전 총리 지지자들이 대법원의 판결에 환호하고 있다. 파키스탄 대법원은 칸 전 총리의 체포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12일 열리는 또 다른 법정 심리 때까지 경찰의 보호 아래 구금을 명령했다. 칸 전 총리에 대한 체포는 이번 주 초 폭력 시위 사태를 촉발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